

## 금강대학교 2021학년도 전기 졸업식

### 축사

금강대학교 2021학년도 졸업생 여러분!

오늘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확히 2년 전부터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역병을 잘 견뎌 내면서 학위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주신 여러분이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동안 노심초사로 온갖 정성을 기울여 뒷바라지해주신 부모님과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상황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대면 및 비대면 강의를 해주시고, 기숙사 생활 등에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세심하게 챙겨주신, 교수님과 직원선생님들의 노고에 총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유지에 따라 2003년 금강대학교를 창립하시고, 전교생 장학금을 비롯하여 아낌없는 지원으로 오늘 15번째 졸업생을 배출하시는, 대한불교천태종단과 학교법인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이사님, 그리고 학교법인 처장님께 학교 교직원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금강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오늘 졸업식이 끝나고 금강대학교 교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학문과 인생의 선배로서 몇 가지 기대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이상 국내외 여러 대학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은 한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실속 있게 교양과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자신이 한국 최초의 인문사회과학 분야 리버럴아츠 대학인 금강대학교에서 ‘소수정예’로 배양된 인재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긍지로서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금강대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을 사회에 나아가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동안 대학에서 체득한 전문 ‘지식’에 더해, ‘지혜’와 ‘자비’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그로 인해 온갖 유형의 갈등이 난무하는 오늘날이지만, 여러분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보살피며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한 알의 ‘씨앗’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금강대학교의 기숙대학(RC) 환경에서 동료들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협동의 자세를, 단순한 전문지식이 아닌 ‘인’의 정신을 체득할 수 있었던, 진정한 의미의 인재로 키워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아가서도 끊임없이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다양한 표현처럼,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인류의 삶과 환경이 끊임없이, 그것도 예측하기 어렵게 급변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4년 동안 대학에서 학습한 내용은 한마디로 서양에서 수세기전의 근대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대학문이 인간의 이성을 뒷받침해주는 토대학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21세기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지식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는 망설이지 마시고 대학원 진학 혹은 단기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모교에 대한 긍지와 애정입니다.

금년 11월7일이면 우리대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이합니다. 불과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대학교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졸업생들의 사회진출 만해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체 졸업생(994명) 가운데 약 1/4(즉, 4명 가운데 1명)이 공공부문에 진출했습니다. 국내외 대학원에도 진학하여 현재 23명이 교수나 연구원으로 국내외 대학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해외 27명을 포함하여 국내외 민간부문에 다수의 졸업생들이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 한번 세워지면 앞으로도 지속되는 소위 ‘경로의존성’이 형성되는 것이 대학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수 정예’의 인재를 양성하는 금강대학교의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금년 개교 20주년을 계기로 우리 대학교는 지금 ‘제2건학’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전계획이 그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탈근대주의 사조, 과학기술의 진보, 그리고 전지구화 현상이라는 도전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급한 문제까지 겹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를 우리는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교만의 특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동아시아 최고의 대학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섯째, 모교와의 소중한 인연입니다.

여러분이 맺은 금강대학교와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사회생활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언제든지 모교를 다시 찾아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교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가족같이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모교는 결코 여

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과 사회 발전에 모두 기여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강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거듭 축하합니다! 그리고 힘찬 새 출발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17.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